

'동북아 시대와 차이나타운' 워크숍 (경기일보 2003.07.01)

‘본보주최 동북아 시대와 차이나타운’ 워크숍

[경기일보 2003-7-1]

경기도 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(KINTEX)내 차이나타운 유치 등을 통한 국제도시 건설로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.

이러한 가운데 1 일 오후 각계 전문가 및 고양시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구청에서 열린 서울중국학센터 제 10 차 워크숍은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.

경기도와 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(KINTEX)내 차이나타운 유치 등을 통한 국제도시 건설로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.

이날 가장 먼저 ‘지역사회와 세계화’ 를 주제로 발표한 이인현 고양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“차이나타운을 통한 고양시의 세계화를 위해선 하드웨어적 측면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과정에 시민들의 여론이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” 고 강조했다.

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정태인 기획조정실장은 ‘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’ 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“중국의 발전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가 현실화되고 개방적 지역주의화가 일어나고 있다” 며 “국가 공통의 이익을 위한 한·중·일 3 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” 고 역설했다.

‘한·중협력시대의 현재와 미래’ 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여풍

중국국제상회 수석대표는 “한·중간의 경제 무역 및 산업 협력 등 상호 교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” 며 “이같은 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 건설로 양국간 교류협력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다” 고 주장했다.

유국홍 전 한성화교협회장은 ‘한국화교 100 년사’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“한국사회의 일원인 화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한·중 동반자적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” 며 “일산 차이나타운이 한국과 범중화권과의 교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양필승 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장은 “차이나타운은 수도권 관광벨트이자 거대 배후상권과 첨단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국국제전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” 며 “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기능 수행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 역할과 함께 문화·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” 고 말했다.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.

임진철 아태경제문화연구소장은 “일산에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후 중국 북경에도 코리아타운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” 고 말했다.

박복남 시의원은

“지난해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한 시와 차이나타운개발주식회사간의 협약서 체결 이후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한 상태“라며 “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이 필요하다” 고 강조했다.

최경식 시의원도 “현재 차이나타운 건설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주거·상업지역 수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주거시설 조성에 대한 면밀한

검토와 개발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” 고 주장했다.

/고양=김동식기자 dosikim@kgib.co.kr

<http://www.kgib.co.kr/>